

동영상 자료 개발 정당화 논리 - '사실혼의 개념과 혼인취소의 요건' -

2018-11572 조영진

1. 주제 선정 및 기대효과

본 수업의 주제는 '사실혼의 개념과 혼인취소의 요건'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와 법' 과목의 수업이다. 이전 차시에 혼인의 성립 요건을 배웠는데 그로 인해 생성된 학생들의 질문 중 심화개념이 담겨있는 질문을 선별에 이전 차시에 대한 심화 수업을 하는 시간이다. 본인 스스로가 질문한 내용이기에 때문에 궁금증 유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법을 보고 해석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실제 민법 816조 조항을 가져와서 학생들과 분석해보는 활동을 설계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련된 조항(민법 제 807조, 809조, 810조, 815조)까지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학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수업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도 그려보기' 활동을 추가하였다.

곧 성인이 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였고, 사회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경험에서 비롯된 사전지식이 많으므로 수업 중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하여 쌍방향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내에서 학습한 개념들은 정치와 법의 '가족생활과 법' 단원에 대한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고, 이전 시간에 대한 심화 내용을 배우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수업 진행 과정의 논리

(1) 도입

도입 단계에서는 이전차시 내용을 회상하며 수업을 시작하였다. 혼인신고서의 사진을 제시하며 구성요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기억을 물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알라딘"에 나온 OST 영상을 시청하며 시청각 자료를 사용에 흥미유발과 주의환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사기를 통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에는 학생들이 페들릿을 통해 질문한 내용을 칠판에 적으며 학생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자연스럽게 오늘의 수업 목표 두 가지인 '사실혼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와 '혼인 취소 요건을 규정한 법률을 직접 해석할 수 있다'와 연결 지었다.

(2) 전개 I

먼저 사실혼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들과 친숙한 유튜브에 커플 크리에이터들의 예시를 보여주며 부연 설명하였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어떤 권리가 생기지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때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에게 정답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실혼의 권리를 강조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사실혼과 법률혼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상속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 전개 II

다음 주제로 혼인의 취소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에서 실제 민법 조항을 ppt로 준비하였고, 이 조항에 언급되는 다른 조항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적극적인 학생 활동을 유도하도록 수업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힌트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했다. 그리고 '법률 분석하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을 개념을 학생들의 사전지식에 기초하며 물어보고 교사가 예시를 들어가며 정리하였다. 또한 용어 개념만 정리하다보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친혼을 규정하는 '촌수' 개념을 학습할 때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4) 마무리

마지막으로는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며,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배운 내용과 합쳐 평가가 있음을 예고하였다. 또한 다음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며 수업을 종결하였다.

3. 동영상 제작 논리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총 4개의 카메라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두 개의 교수자 정면촬영용(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교수자 측면촬영용 한 개, 학습자 촬영용 한 개이다. 삼각대를 사용하여 영상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

영상 편집에는 Movavi Video Editor 15를 사용하였으며, 정면 촬영은 총 4개로 분할된 영상들이 있었고, 측면 촬영은 full-time 영상 1개, 학습자 촬영도 full-time 영상 1개가 있었다. 이 세 개의 측면을 차례로 쌓아 시작점, 즉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 이 세 개의 측면을 적절하게 반복하며 조합하여 지루하지 않은 영상 전환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사용하였다. 구도 선택의 기준은 정면에서 찍는 것을 위주로 하되, 칠판에 학생들의 질문을 적거나 피피티가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경우에는 측면에서 좀 더 교사 쪽을 가까이 찍은 구도를 삽입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형 활동이 많았던 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발언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에는 학습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학생을 비추는 카메라 구도를 삽입하였다. 한편, ppt를 참고하면 좋지만 정면이나 측면 교수자 촬영 카메라로도 ppt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ppt 화면을 캡처하여 화면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사용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큰 화면으로 보여주어 학습자들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계획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돌발 질문도 최대한 담아 생생한 수업을 담고자 하였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것, 사진과 영상자료를 적절히 삽입하는 것을 이번 동영상 과제의 영상제작 논리로 사용하였다.

4. 한계점 및 의의

처음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이었고, 노트북의 사양, 다른 기계들의 사용법, 용량, 편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처음에는 Windows Movie Maker를 이용해 작업을 마쳤으나 워터마크 문제가 있었다. Premiere로 다시 시도를 하고자 했지만, Premiere가 요구하는 컴퓨터 최소사양에 못 미쳐 설치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조교님께서 추천해주신 Movavi 프로그램 체험판을 이용하여 작업을 했지만 이 역시 워터마크가 크게 남아 워터마크가 있는 채로 송출하지 못하고, 반디캠을 이용하여 화면을 녹화하였다. 반디캠 역시 무료 체험판이어서 10분이 최대 녹화 가능 시간이라 세 개로 불가피하게 영상을 분할하여 제출하였다. 기계적인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쓰다 보니 Zoom-It, fade in & fade out, 자막, 소리 효과 등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계획했던 내용은 다 내용에 담을 수 있었고, 여러 시도 자체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였고, 이번 과제를 기계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영상 제작 실력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다.

참고 문헌

-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재경 (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이경호, 손영찬, 이철욱, 김태은, 강윤식, 주혜경 (2018). 고등학교 정치와 법. 파주: 미래엔